

## 2010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개최



2010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1월 14일 오전 8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공동 주최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신년인사회는 김쌍수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의 개회사,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신년사에 이어 참석인사들 간에 신년하례가 있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박궁식, 이 관, 정근모, 김시중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비롯하여 구한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박군철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이종훈 한전 전우회장(전 한전 사장), 한영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장영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등 원자력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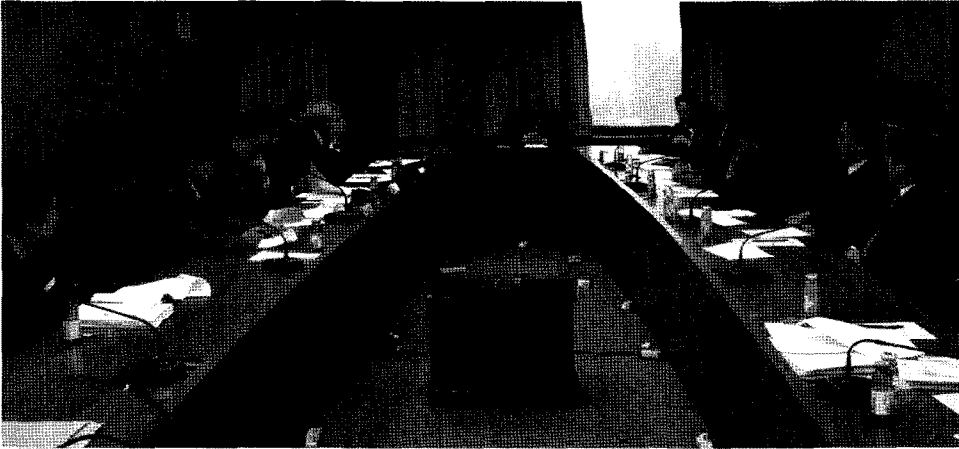
## 원자력 퇴직인력 활용 기반조성 및 원전수출 지원사업 과제 수주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구랍 21일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원자력 퇴직 인력 활용 기반 조성 및 원전 수출 지원 사업 과제' 수주 계약을 맺었다.

수출 산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맺은 이번 과제는 △ 퇴직 전문 인력 Pool DB 구축 및 수출 대상국 기술 인력 교육, △ 원전 수출 사업 지원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 수립, △ 수출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원전 수출 전략 제언, △ 한국형 원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원산은 사업 수행을 통해 △ 퇴직 전문 인력 Pool 구축 및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 수출 대상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원전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원전 수출 기반 조성, △ 해외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 유관 기관의 수출 전략 수립에 기여 △ 수출 대상국에 대한 사업 환경 조사를 통한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 방안 제공 등을 기대하고 있다.

## 2010 ISTIC-KAIF Workshop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정책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원전 사업 경험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UNESCO 후원 기관인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인 「원전 이해 증진 워크숍」의 구성을 위

한 준비위원회 회의가 1월 20일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908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근모 한국전력공사 고문을 비롯하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주요 관련 기관의 임원 및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의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릴 ISTIC-KAIF Workshop에는 ISTIC의 초청으로 해당 국가별로 장·차관 및 기관장급 인사 2명씩 총 30여명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 세미나(2일) 및 산업 시찰(2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외국 참가자들의 국내 체재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er)는 2005년 도하에서 개최된 China+G77의 Second South Summit의 실천 계획의 하나로 유네스코 후원으로 개도국의 과학 기술 협력 지원을 위해 2008년 5월에 출범한 단체이다. 본부는 말레이시아에 있다.

## 한국원전산업 해외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 관계자 회의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한국 원전 산업 해외설명회 개최를 위한 관련 기관 홍보 관계자 회의를 1월 21일 한국원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중공업 등 북경 핵공업전람회에 참가하는 주요 기관의 홍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10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핵공업전람회(NIC)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전시 활동 지원 방안과 전시회 기간 중 현지에서 개최국 및 주요 외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원전 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